

건축계 뉴스 / 정보

建築學會 정기총회 任員改善 · 學術발표회도

대한 건축학회는 지난 4월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금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새 회장단선임과 임원개선 등이 있었으며 회장에는 金根德(연세대)교수가 피선되었으며 부회장에는 李光魯(서울대)교수, 金眞一(한양대)교수, 朴胤成(고려대)교수 등이 선임된데 이어 총무이사에는 金德在(중앙대)교수, 연구이사에는 李璫會(연세대)교수, 사업이사에는 尹道根(홍익대)교수 등이 각각 선임되었다.

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특별강연회와 학술발표회도 아울러 병행했는데 특별강연회는 각 분과별로 실시 제1분과(설계 및 교육분야)에는 “영국의 설계교육”에 대해 林忠伸(울산공대)교수의 주제발표와 생태설계론과 이의 설계교육 및 실무의 의의” 高州錫(美조지아주립대)교수, “미국대학에 있어서의 건축설계 교육” Alexander Erdely(美오코라호대)주제 발표가 있었다.

제2분과(환경 및 공학분야)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건축디자인 방법론” 李璫會(연세대)교수와 “에너지절약에 관하여” 石橋英一(日本大分大学)교수 “건설공학에 대하여” 山崎均(日本大分大学)교수 등이 주제 발표를 했다.

한편 학술발표회의 주제 및 발표자는 모두 17명으로 역시 각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했다.

建築大展 공모요령 發表

大韓民國 建築大展이 처음으로 오는 10월15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건축가 협회와 건축대전운영위원회가 주최하는 建築大展은 지금까지 해마다 정부가 주관하던 國展에서 분리, 올해부터는 독자적으로 개최되게 됨에 따라 첫번째로 열리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주최측은 초대전과 일반 공모전으로 나눠 초대전 작품은 10월11일부터 13일까지, 일반작품은 10월4일부터 7일까지 출품토록 했다.

출품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응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발표는 10월14일로 예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공모전에 관한 시상 내용은 大賞 1점과 優秀賞 3점, 그리고 入選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밖에 建築大展에 따른 문외는 建築家協會 사무국 (722-4613)으로 하면 된다.

土木學會 정기총회

大韓土木學會는 지난달 24일 제30회 정기총회를 열고 지명위원회에서 선출한 포항제철 부사장 丁明植씨와 해운항만청 차장 鄭然世씨를 각각 부

회장으로 인준했다.

또 총 1억 5천 7백만원의 금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데 이어 대의원수를 종래의 70명 이내에서 1백명 이내로 개정된 정관개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建設협회 임시총회

대한건설협회(회장 李載濟)는 지난달 21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82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4월30일 오전 11시 건설회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임시총회개최일시 및 議事日程을 확정하고 81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82년도 일반회계 및 新건설회관건립기금조성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결의했다.

이어 대의원선출규정을 일부 개정, 서울지부대의원의 선출은 一般工事業免許와 특수공사업면허의 수를 건설공사 도급한도액 上位 순위로부터 상·중·하로 3등분하여 각각 代議員定數의 $\frac{1}{3}$ 씩 선출케 했는데 중견에는 면허수를 합해 100人마다 10人의 비율로 선출토록 했었다.

宣炳澤교수 정년퇴임

한양공대 건축과 宣炳澤교수가 지난 4월 17일 정년 퇴임했다.

동교에서 10여년 이상 재직해 온 宣교수의 정년 퇴임식은 동료교수를 비롯한 동문,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에 거행되었다.

宣교수는 日本早稻田大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후진양성에 심혈을 쏟아 우리나라 건축공학계에 많은 공적을 쌓았다.

한편 본회 具琬會회장은 이날 식전에서 宣교수의 學德을 기리는 송적사를 했다.

李明浩교수 中央大工科大學長에

本會 편찬위원기도 한 李明浩교수가 지난 3월 2일 中央大學校 工科大學長에 취임했다.

李柱璜교수 本會來訪

李柱璜교수는 지난달 27일 본회 具琬會회장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현재 경상대 이공대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李교수는 한양대 산업대학원 출신으로 이날 具회장과 건축계, 학계 등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潘好鎔교수 本會訪問

정주대학교 공대 학장에 취임한 潘好鎔교수가 지난 27일 본회를 방문하고 具琬會회장과 환담을 나눴다.

지난 3월 동교 공대학장에 취임한 潘교수는 한양대 대학원 출신으로 이날 취임인사를 겸해 본회를 방문했다.

朴胤成교수 高大工科大學長에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朴胤成교수는 지난 3월 1일 동교 工科大學長에 취임했다.

建設기술제도 補完 검토

정부는 건설기술의 국내 수준향상과 국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건설업체 평가제도의 개선 등 다각적인 건설기술 관련제도의 보완·정비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부가 마련한 建設技術開發計劃에 의하면 工事品質향상과 원가절감으로 정부예산을 절약하며 나아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건설기술의 혁신을 통해 국민경제기여도를 더욱 높이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정부차원에서 建設技術研究發展과 기술훈련 및 보급에 역점을 두고 민간건설업체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기술축적에 힘쓰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건설부는 현재의 건설기술수준이 설계능력면에서 국내의 단순工事は 가능하나 特殊技術集約的인 국내공사나 해외공사의 설계가 未洽하여 施工能力은 국내·해외 모두 가능하나 일부 특수공사에서 외국의 監理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기술의 혁신을 위해 가칭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하고 건설기술 연구체계의 개편 및 우수기술직 공무원의 확보와 건설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교육과정의 「컬리큘럼」을 개편,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용역제도와 대형공사계약제도, 건설업체평가제도를 개선하고 工事監理制度의 단계적 실시를 시도하기로 했다.

한편 80년말 현재 설계·시공·행정·교육 등 건설기술인력은 총 6만 3천 300명으로 대학과정(전문대 포함)을 해 연간약 1만 2천 400명이 양성돼 연간 약 3천 500명이 건설기술교육원 등에서 補修教育을 받고 있다.

건설부가 建設技術革新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建設技術管理法(가칭) 制定—建設技術開發을 종합 관장하는 법률을 제정, 개발 계획의 수립 및 기술의 연구

보급, 開發 조성 및 기술인력 관리에 적정화를 도모.

設計用役制度의 改善—설계용역 계약은 入札者에 대해 미리 그 설계용역의 執行計劃書를 제출케 하여 사전에 조사함으로써 신기술 및 우수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受注의 우선권을 부여토록 한다.

工事監理制度의 段階的實施—官主導의 공사감리제도를 점차 용역감리체제로 바뀌 民間監理能力의 향상과 업체의 자율적 우수시공을 유도함으로써 공사의 질적향상을 期待.

大學教育制度의 改編—建設技術 教育에 대한 기초분야의 충실화와 전문분야의 세분화로 건설기술의 고급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

建設公務員 教育強化—국립건설연구소 훈련부를 개편하여 건설공무원 교육원을 신설, 건설기술공무원과 국영기업체기술자에 대한 보수교육강화.

大型工事 契約制度의 改善—설계의 질이 일정수준 이상에 대해서는 최저입찰자가 낙찰자가 되는 현재의 대형공사계약제도를 발전시켜 입찰금액 이외에 설계의 優秀度를 감안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優秀設計誘導를 통해 기술향상을 도모.

建設業體 評價制度改善—工事受注 都給限度額決定에 주수실적 및 기술축적도와 기술집약형 공사실적을 감안하여 企業體質의 개선을 유도.

都心에 新築빌딩 러시

한동안 부진했던 도심재개발사업이 올해들어 크게 활기를 띄고 있다.

4대문 안의 도심미관을 해치던 불량건물들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산뜻한 고층빌딩들이 세워지고 있다.

현재 4대문 안에 건물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두산빌딩 신축부지인 중구 을지로 1가 6 등 14개소 또 9개소의 再開發事業計劃이 확장돼 불량지구 23개소가 말끔히 정비된다.

현재 신축 중이거나 계획된 건물들은 최하 10층에서 24층까지로 연건평도 2천여평에서 3만 2천여평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도심재개발사업은 86년 아시안 게임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보여져 늦어도 오는 85년 말에는 도심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都心再開發事業이 활발해진 것은 지난 연초에 도심고층빌딩 신축 규제조치가 완화되고 각 기업체나 은행들이 도심복판에 자체사옥을 건립, 社勞의 위용을 과시하려는 의욕때문이다.

이같은 경우로 대형빌딩을 신축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은 두산빌딩·힐튼호텔·제일은행·상업은행 등 모두 15개소에 달하고 있다.

반면 도심에 부지를 확보치 못한 건설업체가 地主들과 공동개발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두엄12블럭(공영토건), 도업22블럭(정우개발) 등 3개소이며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 업무용빌딩을 신축하는 곳은 무교지구 8블럭, 공평 3·5·6지구, 회현 5지구 등 5개소에 이르고 있다.

한편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도시미관조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신축 중이거나 계획을 확정된 사업지구의 빌딩신축규모는 다음과 같다.
(단위: 평)

建 物 名	地地面積	建築面積	延面積	層數
武橋 8 地區	305	159	2,250	12
서울 新聞	2,035	660	16,482	18
內外 興業	1,209	482	10,144	15
斗山 企業	1,073	376	9,352	17
힐튼 호텔	5,676	2,798	23,790	21
大農 빌딩	835	374	6,060	10
都染 12 地區	1,104	484	7,562	10
公平 3 地區	1,273	434	8,412	12
公平 5 地區	1,083	435	7,363	12
公平 6 地區	879	333.8	6,189	12
東邦 生命	2,679	810	26,540	17
롯데 建設	877	339	7,392	15
第一 銀行	2,869	1,054	21,770	18
中央日報社	4,906	1,960	32,870	18
韓一 합섬	851	340	8,170	15
유니온	833	335	8,071	15
有元 建設	653	249.1	6,233	17
大旺 興産	1,638	570	10,954	17
大宇 福祉	932	370.6	8,203	18
都染 22 地區	971	401	7,383	15
三益 住宅	302	135	2,781	15
會賢 5 地區	1,212	434	11,000	17
商業 銀行	2,645	970	24,380	24

賃貸주택건설로景氣유도

金垞成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서민용임대주택건설 및 정부부문의 投融資事業 확대를 중심으로 침체된 국내 경기를 부양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金부총리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마련한 업계와의간담회에 참석,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공급을 늘리기는 어려우나 부진한 賃貸住宅建設을 촉진하고 정부부문의 投融資事業을 늘려 경기진작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金부총리는 또 경기부양을 뒷받침하고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전반적인 稅制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부총리는 금융유통구조상의 취약점때문에 돈을 풀어도 골고루 택이 돌아가지 않으므로 앞으로의 자금방출은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용해나가는 한편 總通貨목표를 유지해 나가는 범위 내에서 시기적으로 통화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1次전형 合格者 발표

111명 합격 23일 2차 전형

82년도 건축사자격시험 1차 전형 합격자는 모두 1백11명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지난 3월21일 실시되었던 동 전형에는 모두 1천2백56명의 수험생이 응시해서 1차시험 과목인 건축구조, 시공, 법규 등 3개 필기시험을 치렀다.

한편 마지막 관문인 2차 시험 일정은 오는 5월23일에 실시되는데 건축계획은 오전 9시30분, 건축설계는 오후12시50분에 홍익대에서 각각 실시된다.

시험범위는 건축계획의 경우 단지계획, 계획원론 및 각론, 설비, 건축사 등이며 건축설계는 리조트 호텔에서

실기를 실시 한다. 2차 합격자 발표는 오는 7월말경에 할 예정이다.

3년마다 地價조정

건설부는 이미 고시된 基準地價를 3년마다 재조정하여 새로 고시할 방침이다.

건설부에 의하면 기준지가를 고시한지 3년이 지나면 경제적, 사회적 여건변동으로 實際地價와 차이가 생겨 보상이가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 78년 이전에 기준지가가 고시된 25개 지역 3천326km² 중 우선 올해 여수 및 광양·낙동강하류, 군산, 창원, 온산, 구미, 회덕, 아산만, 북평 경주 등 10개 지역 2천400km²에 대해 基準地價를 고시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나머지 15개 지역 825km²의 기준지가는 명년 재고시할 예정이다.

金敬煥 교수출판기념회

본회 추대회원인 金敬煥교수(이화여자대학교)가 지은 <梨花의 뒀안길에서>의 출판기념회가 5월7일 오후 6시부터 하이아트호텔 볼룸에서 열렸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30여년 몸담고 있으면서 이화 내의 대부분의 건물(대강당·기숙사·이학관·도서관·새집 등)을 설계·건설. 감리까지 한 金敬煥교수의 출판기념회에는 건축계 인사와 이화재단의 교수진들이 참석하였으며, 본회에서든 具珣會회장을 비롯하여 이사진들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 했다.

<梨花의 뒀안길에서>는 1981년도까지의 이화학당 산하 주요건물의 여러 가지 자료를 한데 묶은 것으로서 사진·도면과 함께 건축과정에서 저자가 겪고 느낀 이야기들로 엮였다.

住宅자금需要저조

주택자금용자대상을 확대하고 戶當용자한도액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경기의 침체로 주택자금수요가 작년 수준보다 떨어지고 있다.

주택은행에 의하면 올 1·4분기중 풀려나간 주택자금은 총 473억9천700만원으로 1·4분기 대출계획액 853억원의 55%에 불과하고 연간목표 4천430억원의 10.7%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個人賦金加入者들이 대부분 용자받고 있는 형편으로 사원용 주택건설용자와 분양건설자금, 분양구입자금들은 거의 없다시피한 실정이다.

건설업자들의 運轉資金貸出도 지난해 同期에는 32억4천만원에 달했으나 올 1·4분기에는 4억6천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에너지절약 심포지움

한국·덴마크 공동주최

한국-덴마크 에너지節約 및 地域暖房 심포지움이 지난 11일 서울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에너지 관리공단과 덴마크지역난방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심포지움에는 동자부 李宣基장관과 덴마크에너지성 폴 니엘손장관이 참석, 인사말을 했다.

이날 심포지움의 제목은 “한국의에너지 사정과 熱併合 發電에 의한 지역난방”으로 金容德(에너지 관리공단)씨가 주제 발표를 했다.

주요내용은 그동안 4차에 걸친 경제개발로 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며,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전제하고 대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중앙집중식 열공급이 실시되고 있으나 그 효율이 낮으므로 열병합 발전방식에 의한 지역난방을 연구 검토한바, 경제성, 효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상세한 조사사업과 제도적 장치마련을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밖에 연사로는 덴마크의 레나트 라손, H·C 모덴스, 모언스라손, 알란 테스트름 G·S핀토씨 등이 주제 발표를 했다.